

한-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 및 해외시각

주혜원 | 부전문위원(3705-6204) 외

- [주요 내용] 7/30일, 한-미 양국은 한국의 \$3,500억 대미 투자와 \$1,000억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당초 부과 예정이던 25% 상호관세를 15%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(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% 관세 포함) 무역 협상을 타결
- [시장 반응]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직후,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,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확대로 하락 전환. 원/달러 환율은 일시적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
- [해외시각] 한국은 조선업 협력 등 대미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일본, EU와 유사한 수준에서 무역 합의(상호관세율 25% → 15%)를 도출하며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. 다만 기존보다 높아진 자동차 관세(15%) 등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
- [평가]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주요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,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나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관찰 필요

- [주요 내용] 7/30일, 한-미 양국은 한국의 \$3,500억 대미 투자와 \$1,000억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당초 부과 예정이던 25% 상호관세를 15%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(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% 관세 포함) 무역 협상을 타결
 - (상호관세) 미국은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관세 25%를 15%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며, 한국은 일본·EU 등과 유사한 조건을 확보
 - (품목별 관세) 15% 관세율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나, 철강, 알루미늄, 구리는 기존 관세(50%)를 유지함에 따라 협정에서 제외. 반도체 및 의약품은 타국과 비교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을 약속
 - (대미투자) 한국은 미국에 3,500억달러(약 488조원) 투자를 약속하였으며, 1,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·에너지제품 구매를 포함한 산업 협력 및 투자에도 합의

- 한국은 미국 내 3,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 중 1,500억달러는 조선업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,000억달러는 반도체, 원자력, 배터리, 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할 계획
-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LNG(액화천연가스) 등을 포함하며 1,000억달러 규모로 3년 반 동안 진행될 예정(Reuters)
- (시장 개방) 미국산 자동차·트럭·농산물을 한국 시장에 전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데 합의. 다만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되었고, 기타 비관세 장벽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
- (정상회담 예정) 韓 대통령은 2주 이내 美 워싱턴에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 중인 상황
 - 방위비, 지도 데이터,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감 이슈는 이번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
- [시장 반응]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직후,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,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확대로 하락 전환. 원/달러 환율은 일시적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
 - (환율) 달러/원은 한-미 협상 중 환율 논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,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를 반영해 소폭 상승(+3.9원, 0.3% 약세)
 - 달러인덱스는 엔화 강세(+0.5%, 매파적 BOJ) 등으로 0.2% 하락. 필리핀 페소화(-1.0%), 대만 달러화(-0.5%) 등 여타 아시아 통화들은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로 약세
 - (주가)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(-0.3%). 자동차 업종(현대차 -4.5%, 기아 -7.3%)이 낙폭이 컸으며, 조선업(HD현대중공업+4.1%)은 강세, 반도체업은 혼조
 - 亞주요국 증시는 트럼프의 인도 25% 관세 부과 예고 등을 반영하며 대체로 약세. 중국 -1.6%, 인도 -0.2%, 호주 -0.2%. 일본은 BOJ 금리동결에 +1.1% 상승
 - (금리) 한국 국고채 금리(3년)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농업고용 발표를 앞둔 관망세 등으로 보합
 - BOJ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나 인플레이 전망을 상향하고(2.2→2.7%),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 수위를 낮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둠. 일본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(-1bp, 1.55%)

<표> 주요 금융시장 지표

	전년말 (24.12.31)	상호관세발표 (25.4.2)	전일 (25.7.30)	금일* (25.7.31)	전일 대비	상호관세 발표일 대비	연간(25)
코스피	2,399.5	2,505.9	3,254.5	3,245.4	-0.3%	29.5%	35.3%
국고채 금리(3y,%)	2.60	2.58	2.45	2.45	0bp	-11bp	-13bp
CDS(bp)	38	37	22	22	0bp	-15bp	-16bp
원화 환율**(USDKRW)	1,472.5	1,466.6	1,383.1	1,387.0	-0.3%	5.7%	6.2%
일본 주가(Nikkei225)	39,894.5	35,725.9	40,654.7	41,081.1	1.1%	15.0%	3.0%
중국 주가(CSI300)	3,934.9	3,884.4	4,151.2	4,084.2	-1.6%	5.1%	3.8%
일본 국채금리(10y, %)	1.10	1.47	1.56	1.55	-1bp	9bp	46bp
달러인덱스(DXY)	108.487	103.807	99.815	99.608	-0.2%	-4.0%	-8.2%

자료: Bloomberg.

* 한국시간 15:30분 기준

** 환율 변동폭은 미 달러화 대비 강세/약세폭

□ [해외시각] 한국은 조선업 협력 등 대미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일본, EU와 유사한 수준에서 무역 합의(상호관세율 25% → 15%)를 도출하며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. 다만 기존보다 높아진 자동차 관세(15%) 등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

○ (협상 관련 평가) 한국 정부는 조선업 관련 협력 및 투자를 핵심 카드로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(Bloomberg)

-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간명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, 자동차 관세(15%)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평가(Goldman Sachs)
- 일본, EU와 동일한 15% 관세 조건을 바탕으로 단기 안정성은 확보하였으나 3,500억달러 투자펀드가 미국 주도 구조인 점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 약화 우려(Bloomberg)
- 일부에서는 한-미 협정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. 협상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위협 수준보다는 낮지만, 취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(The Hill)

○ (韓 산업별 영향) 산업별로는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며, 자동차 업체는 15%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으나, 일본 및 EU와 동일 조건 하에 현대차 및 기아차가 경쟁 가능할 전망(Morgan Stanley)

-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.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정책은 한국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'센티먼트 완화'를 제공(Morgan Stanley)

-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밸류 체인상 중국과의 배터리 소재 관련 생산비용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에 모멘텀을 부여할 전망(UBS)
 - 이번 합의로 일본-한국이 동일한 15% 관세율로 통일됨에 따라(기존에는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 대비 2.5%p 높은 미국 수출 관세율을 적용) 한국 자동차의 수출 여건이 다소 불리해졌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
- 한국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(ING)
- **(한국 경제 영향)**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및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
 - 한미 협상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고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함에 따라 '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.0%로 유지(Nomura)
 - 투자 금액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우호적으로 보이지만, 구체적 투자, 에너지 구매, 비관세 이슈들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(Citi)
 - 이번 무역 합의는 하방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. 최근 경기 부양책에 따라,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(Morgan Stanley)
 - 이번 합의는 한국은행이 관세에 대해 가정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타결되었으며, 8 월 금리인하는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
 - 상호관세 및 자동차·부품에 대한 15% 관세율은 '24년 0.2%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(Bloomberg)
 - 보편·자동차 관세율 15%에 반도체와 의약품도 15%로 부과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6.5%로 예상(Citi)
 -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, 한국 수출 중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대미 수출 의존도도 높아 전반적인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. 하반기 경제 성장 동력은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(ING)
 - 자동차 및 부품 상호관세 인하(25% → 15%)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 부진과 구조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성장전망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(Bloomberg)

- 시장은 관세 합의의 긍정적 내용과 불확실성 해소에 주목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, 추가 관세는 한국 및 글로벌 경제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. 한국 수출은 하반기 중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이는 대부분 AI 관련 수출에 국한되어 있으며 추세적 회복세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존재(ING)

□ [평가]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주요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,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나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관찰 필요

- 협상 타결 직후,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‘90%의 이익(profits)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’고 표명한 점, 관련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미-일 합의 사례와 유사하며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(Bloomberg, Reuters)
- 금번 합의는 협정의 틀/framework)에 관한 것이며, 최종 무역협정 도출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음.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은 15개의 교역국 중 11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됨(The Washington Post)
-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주둔비 이슈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, 향후 韓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. 이견 발생시 큰 틀의 합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재(Bloomberg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45 혹은 hwjoo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